

彌勒大院的 研究

申 榮 勳

一、머릿말

中原部 上莖面 彌勒里에는 이른바 彌勒里寺址로 通稱되는 巨大한 石窟寺院이 있어 유명하다.

二〇〇여튼이나 되는 무게의 武砂石形 長材를 써서 積疊石壁을 이루고 그 上半에 木造로 架構하여 法堂을 이루었던 壯大한 遺構와 前室、法堂 中心部에 우뚝 솟아 있는 巨軀의 石造彌勒立像이 奉安되어 있다. 三面을 장대로 쌓은 窟內壁에는 龕室이 있고 浮彫의 尊像들이 周壁을 장엄하고 있는 거룩한 구조이었으나 이제는 火傷과 凍破로 태반이 상실된 상태로 남겨져 있다.

法堂은 釜(婦)山을 背山으로 삼고 德周城(德周寺)을 向하고 있다. 한 수로 흐르는 골짜기가 眼下에 전개되는데 窟의 主軸線上에서의 軸정은 子午를 가르키는데 午坐子向이다.

法堂前庭엔 主軸線上에 石燈과 石塔이 있고 그 北端에 門址와 巨大한 龜趺가 있으며 門外에 幢竿支柱가 남았다.

法堂前庭의 東便 山麓에 沿하여 建物址가 있다. 西向한 이 建物址가 窟을 건너엔 東向한 建物址가 또 있다.

동쪽 西向한 建物址 동편 언덕 위로 또 여러 채의 집터가 있고 그 한 구석에 三層石塔 一基가 더 있다.

이들 建物址와 법당 터는 두 차례에 걸친 淸州大學博物館에 의한 발굴로 들어나게 되었는데 건물터 전부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數三年사이 이 彌勒里寺院은 크게 주목되어 發掘과 實測이 실시되었다.

注目の 발단은 開發에 있었다. 中原郡에서는 奧地의 새마을사업의 先進의 效과를 얻는다는 계획아래 寺院址에 있는 가난한 農家들을 옮기기로 하였고 새집 지어주어 移住하게 하였다. 옮겨간 뒤 남은 집터 정리에 重機에 의하여 幢竿支柱 등의 遺構가 突出되었다.

즉시 공사는 중지되고 全面調査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發掘과 實測 調査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當局이 동의하였다.

發掘은 淸州大學博物館이 主管이었다. 一次發掘은 忠北道에서 施行하였고 二次發掘은 中原郡에서 감당하였는데 二次는 발굴이라기 보다는 一次 때 파다가 저질러 놓은 뒷정리를 하고자 한다는 도금공사에서 들어나는 자료를 채집하는 수준이었다.

발굴로서는 최악의 수단이었는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이었다. 발굴을 주관한 팀에는 관계 전문가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발굴단에 위촉한 行政의 無誠意나 그 일을 지도한다는 명목을 띠고 왕래한 사람이나 결과적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는데 이런 절차로 彌勒寺院을 탐구할 절호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게 되었다. 아쉽고 불행한 일이다.

一、二次發掘의 보고서가 극히 간략하게 淸州大學博物館에서 刊行되었다. 前後 두 권의 작은 印刷物로 말았던바의 일의 성과를 결산 짓고 있다.

一次發掘後 그 결과에 대하여 衆論이 비판적이 되므로 殘土處理工事を 發注하여 塗糊하는 한편 補充的인 조치로 窟의 精密實測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窟內外에 검부계를 설치하고 모든 部材와 彫像을 量尺하였다. 泰昌建築이라는 文化財指定 設計業體에 用役주어 施行하였다. 泰昌建築이라는 文化財指定 設計業體에 用役주어 施行하였다. 泰昌建築이라는 文化財指定 設計業體에 用役주어 施行하였다.

韓國文化財研究院과 協同하여 解析하고, 探索하고, 調査하여 畧한 報告서를 刊行하여 그 결과를 널리 알렸다.

淸州大 발굴보고서는 遺址와 遺物 등의 出土狀況을 기록하고 瓦銘 등에 의지하여 歷史的인 성격 추적 등에 주력하였다.

實測報告書는 寺院, 塔, 石燈 등 石造遺構 등의 實測値를 토대로 初建當初의 意匠計劃에 주력하고 그 時代性을 인본 여러 遺蹟과의 對比를 통하여 뚜렷이 해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石窟初建과 燒燼되어 損傷되어진 上限과 下限의 탐색을 해볼 수 있었다는 업적을 얻은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두 보고서에는 아직도 한결같이 彌勒里石窟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명칭은 국가에서 指定한 遺構의 공식명칭이기도 하나, 原名號와는 다르다. 初建當初에 彌勒里石窟이라고는 부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이 분명한 史乘에 기록되어 있다. 아직 그것의 지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두 보고서나 앞서의 諸論文 등은 이 寺院名號에 注目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제 이름을 찾게 되므로 해서 우리는 이 寺院의 한 단층을 보게된 셈이 되었으며 그 名號와 瓦銘의 一致에서 高麗史 등에 보이는 史實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鷄立嶺 開拓以來의 많은 일들 중에서 이 寺院의 成立에 따른 意義를 밝혀내므로 해서 鷄立嶺 그것의 탐색에도 큰 보탬이 될 자료를 갖게 되었다.

淸州大의 보고서와 文化財研究院의 실측보고서를 토대로 高麗史와 瓦銘에 보이는 史跡들을 이해하면서 彌勒大院의 성격과 안을 시도해 보려 한다. 이것이 이 글을 쓰게된 까닭이다.

二、「大院寺」銘瓦

淸州大 發掘報告書(第一次) 六三~六五項에 銘文 있는 出土瓦를 列記

하였다. 그중에

- 明昌三年 大院寺住持 僧元明
- 明昌三年 金堂改蓋 ○○○○
- 大院寺主持大師 ○瓦立傳 ○○○○○○
- 四月現造

• 瓦立僧元明里儒造
라는 글이 있고 또 打印된 「彌勒」彌勒堂「彌勒堂寺」란 瓦銘도 있다 하였다.

大院, 大院寺, 彌勒, 彌勒堂이 이루는 寺銘이 이 절터와 연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이나 널리 알려진 俗稱은 彌勒堂寺이다. 彌勒 절이라고도 하며 洞里 초 彌勒里에서 이웃한 觀音里와 더불어 매우 불교적인 성격이 짙다.

미륵리와 관음리는 하늘재를 경계로 삼고 있다. 관음리는 현재 慶北 聞慶 땅이고 미륵리는 忠北의 中原郡이다.

하늘재는 寒喧嶺이라 보통 쓴다. 杜甫詩의 「虛名但蒙寒喧向」이란 글귀의 借用인 듯 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淸州大의 발굴보고서 역사편을 서술한 李元根교수는 하늘을 한울로 보면 한의 大, 울의 院이 되어 한울을 大院이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제의하였다.

그는 大院嶺이란 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제의하였을 뿐 전진이 없다. 大院嶺이라 본 卓見을 더 전진시키볼 資料가 없지 않다. 增補文獻備考는 兵考에서 鳥嶺山城을 설명하였다. 「鳥嶺有三路 南有伊吾嶺, 北有大院嶺」이라 하였다. 伊吾嶺이 伊火嶺 오늘의 梨花嶺이라 하면 大院嶺은 鳥嶺의 북쪽에 있는 鷄立嶺에 해당된다. 보통 鳥嶺三路는 鷄立嶺, 鳥嶺, 伊火嶺을 손꼽는데 이는 지금 포장된 國도가 伊火嶺(梨花嶺)이고 三關門이 있는 새재가 鳥嶺이며 鷄立嶺은 石窟寺院이 있는 고개를 말함인데 石窟寺院을 중심이라고 다시 세분하여 指稱한다면 窟의 동쪽 고개가 하늘재(大院嶺, 寒喧嶺)이고 서쪽 고개가 지름재(鷄立嶺, 麻木峴)이다.

釜山、布巖山、月岳山、麻骨山이 이루는盆地가彌勒里인딘 신라에서
는進出하는 方向을 좇아 서쪽 고개를 이 일대의 地名을 代表하도록 하
여 지름재(鷄立嶺)라 하였고 고려에서는彌勒大院의 설치를 염두에 두고
동쪽의 재를 대표로 삼아 大院嶺이라 하였다. 三國、統一期の史料에는
鷄立嶺이란 이름만이 보이는데 비하여 고려 때에는 大院嶺이란 명칭이
자주 史乘에 등장한다.

權近때만 하여도 大院嶺이라 불렀다. 四佛山을 설명할 때도 그 위치
를 大院嶺의 東南地脉이라 하였다.

결구 大院이나 鷄立은 같은 개념으로 한 地域을 指稱하였어서 聞慶堂
의 觀音里에 있던 觀音院의 위치 설명을 「在鷄立嶺下」라 하였다. 엄격
하게 말한다면 大院嶺下라 하여야 옳다①.

觀音里의 觀音院보다 彌勒里의 彌勒院이 그 규모로나 格으로보나 훨
씬 上位이어서 彌勒院을 大院이라 불렀어서 고개 이름도 大院이 있는 고
개란 뜻에서 大院嶺이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출토한 瓦銘의 大院寺는 이 大院이 있는 곳의 寺院을 일컫는다. 彌
勒堂이나 彌勒里에 있는 大院寺는 저절로 彌勒堂大院寺나 彌勒大寺院나
彌勒大院으로 불리어졌을 터인데 僧一然께서 在世하실 때의 通稱은 彌
勒大院이었다. 彌勒院과 大院寺가 복합된 명칭으로 이해된다.

三、지름재에의 注目

彌勒里 石窟寺院이 있는 곳을(鷄)立嶺이라 부른다. 지름재이다.
이에 관련된 기록을 列記한다.

一、麻骨山 俗號鷄立嶺 在北二十八里(文獻備考 卷二二、輿地考 一〇
山川 聞慶條)

二、黛眉 鷄立之嶺 爲鳥嶺之阨……鷄立嶺 麓南至主屹山 南有聞慶縣治
(上揭書 卷一九 輿地考、七 山川 太白山條)

三、鷄立嶺 俗名 麻骨帖 在東北三十里(同書 卷二一、輿地考 九 山川 延
豐條)

四、鷄立川 在北三十里 月川上流(同書 卷二一 輿地考 山川 延豐條)
五、鷄立嶺 俗號麻骨山 北方言相似也 在縣北二十八里 乃新羅時舊路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九 聞慶縣 山川條)

六、鷄立嶺 俗云麻骨帖 在縣北四十三里 高句麗溫達 所謂鷄立峴竹嶺以
西不歸於我 則不返也 此其地(同書 卷一四 延豐縣 山川條)

七、麻骨帖 在縣北 東進聞慶炭項西進周井(世宗實錄 卷一四九 地理志
延豐條)

八、鷄立嶺 俗云麻骨帖 北二十八里 延豐界 新羅阿達羅王三年 始開鷄
立嶺路(大東地志 聞慶 山水條)

九、新羅善德王十一年金春秋(後爲武烈王) 使高句麗 麗王曰麻木峴(即
鷄立嶺) 竹嶺本我國地若不我還則不得歸(高句麗長壽王南伐百濟取其地疆
域及於鳥竹兩嶺新羅眞興王攻取竹嶺以外至于漢陽積城)(上揭書 聞慶縣 典
故條)

一〇、開鷄立嶺路(三國史記 卷二 新羅本紀第二 阿達羅尼師令 三年條)
一一、善德王十一年壬寅、春秋公……(麗)王謂曰 麻木峴與竹嶺 本我國
之若不還則不得歸……(同書 卷四一 列傳第一、金庾信上條)

一二、(眞興大王)十二年辛未 王命居柒夫……百濟人 先攻破平壤、居柒
夫等勝取竹嶺以外 高峴以內十郡(同書 卷四四、列傳第四、居柒夫條)

一三、溫達……臨行誓曰 鷄立峴 竹嶺以西不歸於我 則不返也(同書 卷
四五、列傳第五、溫達條)

以上の 記事를 간추려보면 신라의 阿達羅尼師令 三年(西紀 一五六)에
難立嶺이 개척된다. 同王 五年(一五八)에 열린 竹嶺路보다 二년 앞서
개통된 南北貫通의 大路이다.

難立嶺은 麻木峴、麻骨帖이라고도 부르며 麻骨山(鷄立山)의 재 중의
하나이다. 鷄立山은 동쪽으로 竹嶺에 連하였다.

竹嶺을 넘어 지금의 興海地方까지도 원래는 고구려의 영토이었다. 신라 세력의 발흥으로 竹嶺、麻木峴一帶의 十郡이 신라영토에 귀속되었다. 眞興王때 居柒夫등에 의하여 성취된 전과이었다.

이것이 이후의 고구려와 신라와의 外交에서 큰 문제거리가 되고 국방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金春秋公이 請兵코져 고구려에 갔을때 罽婁되는 구실이 되었고 溫達將軍의 出師의 辨이 되었었다.

鷄立嶺、지름재는 신라의 입장에서 火嶺과 마찬가지로 中原에 진출하는 중요 關路이었다. 벌써 一五六년에 이 길을 개척한 의지는 그만큼 강렬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一五六년경의 신라는 아직 작은 국가에 불과하였다. 지름재에 이르는 길에 부족하지 않은 여러 국가가 상존하고 있었다. 신라 세력이 투쟁하여 갑자기 지름재에 이르러 길을 개척하였다고 하는 사실에는 의문이 있고 논란이 있어 왔다.

지름재는 海拔 一、一〇五m의 主屹山 한 支脉인 鷄立山の 한 고개이다. 그 위치는 대략 北緯 三六도四九分 東經 一二八도六分쯤에 있는데 忠北 中原郡 上莪面의 水安堡를 지나 낮은 고개를 넘어 계속되는 國道를 따라 가다 水安堡 못미처 갈라져 들어가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어야 어구가 된다.

神木이 巨樹인 城隍堂숯을 지나 大寺里로 해서 石門里로 細路는 이어진다. 여기에 峴底의 軍(兵)倉址가 石垣內에 遺存하고 있고 城壁을 쌓았던 城臺가 남았다. 지름재를 방어하는 외곽의 관아가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은근하지만 계속되는 고개길을 따라 올라가면 급한 고비에 이른다. 여기가 지름재의 날맹인데 돌아다보면 大寺里가 아득하게 내려다 보인다.

고개를 넘어도 급하다. 지금의 신작로도 역시 급하게 만들어졌다. 골짜기로 열린 길을 따라 洞府의 幽玄을 만끽할 즈음에야 마을이 나타나다.

마을에 계곡이 있고 언덕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능선에도 성벽을 쌓았던 듯한 흔적이 보인다.

그 안통에 넓은 盆地가 열렸다.

남쪽으로 婦釜峰이라 부르는 五峰의 山이 北向하였다. 主屹山의 한 支脉은 이 산 동쪽에서 北向하여 흐르다가 布巖山에 이어진다. 婦山과 布巖山이 연이어지는 중간쯤에 하늘재가 열렸다. 이 재를 넘으면 慶北 땅이다. 하늘재가 忠北과의 경계선이다. 慶北땅은 聞慶郡이며 첫 동리는 觀音里이다. 觀音院이 있었던 이 마을에는 浮彫한 如來像과 石塔(지금 葛坪에 옮겨져 있음)이 있는 거대한 절터가 있다. 지금도 石築이 있고 瓦片이 무수하여 그 절이 상당한 규모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觀音里에서 하늘재를 지나면 彌勒里이고 여기에 彌勒大院이 있으며 大院에서 지름재를 넘으면 石門이 있는 마을과 大寺里의 巨刹이 당도하게 된다. 재를 두고 전후에 이런 文化 軍事施設이 있었다.

彌勒大院이 北向하여 布巖山을 한쪽으로 건너다 보는데 布巖山은 窟前方쯤에서 北쪽으로 굴절하여 계곡을 이루며 흘러간다. 月岳山에 이어진다.

지름재에서 흘러나린 丘陵이 窟前에서 역시 北折하여 月岳山 쪽으로 가는데 이 두 山이 이루는 골짜기 洞府가 열렸다. 맑고 차가운 溪流가 흘러내리며 龍沼니 하는 작은 폭포등이 있어 景概도 秀麗하다.

이 洞府에는 德周山城이 있다. 蒙古兵이 여기를 통과하고자 德周山城에 위싸고 전투를 치루었으나 번번히 패귀하여서 결국 이 길의 장악을 포기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北方도 역시 鐵甕壁이 되었다.

德周山城에는 德周寺가 있고 유명한 磨佛佛이 있으며 그 맞은편 산기슭에는 獅子頻迅寺가 있다.

盆地는 三面의 防戍施設로 保安되어 있고 文化遺跡의 散在로 완전한 文化廻廊을 이루고 있다. 그런가하면 釜山을 넘어 남쪽에도 山城이 있고 傳鳥嶺院址로 世稱되는 兵營址가 鳥嶺關門城內에 있다. 남방의 적도 이로써 방어할 태세가 갖추어졌다. 四面이 든든하게 보장되는 그런 用

意周倒축에 이彌勒大院은 자리잡고 있다.

三國以來 신라나 고려 때에 여기는 주목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특히 後三國鼎立時 高麗는 이 지역의 掌握으로 甄萱을 제어하려 하였다. 그래서 麗太祖는 여기에 거대한 시설을 하였던 것이다.

四、大院의 翊建

갓까지 합쳐 모두 六個의 돌을 쌓아올려 하나의 거대한 불상을 구성하고 있다. 肉髻에 螺髮이 있으며 일몰은 등글지만 平板의 인테 여기에 등근 눈썹, 직선적으로 감은 눈을 표현한 것이라던가 적은 입을 두텁게 나타내는 것 등으로 말미암아 佛이 가지는 精神性은 적으나 이 얼굴은 몸에 비하면 훨씬 정성드린 것이다.

목은 굵은데다 三道는 간신히 표현되었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어깨는 그냥 塊石일 뿐이다. 이것이 발끝까지 계속되어 신체적인 立體感이라고는 없는 커다란 돌덩이로 바뀌고 말았다.

팔은 있지만 형체만 겨우 나타내었을 뿐이며 손을 가슴에서 펴고 있는 것이나 왼손이 가슴에서 등근 藥壺形을 잡고 있는 것 등 모두 좀 려하다.

通肩의 法衣는 아무 뜻없는 縱線衣紋으로 겨우 있다는 것만 알려줄 뿐이다.

이는 黃壽永博士가 執筆한 것으로 凡例에 밝힌 文公部の「文化財大觀」에 실린 石窟內 立佛에 대한 해설이다. 이 글은 계속된다.

傳說에 따르면 新羅末 麻衣太子가 나라의 멸망을 서러워하여 이곳까지 와서 이 불상을 만들고 皆骨山으로 들어갔고, 그의 여동생은 堤川 德周寺 立佛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전설을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불상을 보호하는 웅장한 石窟이

머 대담한 巨軀로 보아 새로 일어나는 國力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임에 틀림 없을 것 같다.

다만 당시의 통폐이던 巨像을 다루던 기술이 급격히 쇠퇴하였기 때 문에 이런 拙作을 造成하였다고 본다.

麻衣太子 시절이면 敬順王이 麗太祖에게 나라를 바친 때이니 서기 九三六년 전후가 되겠다. 一〇世紀 初半이다. 이때는 고려가 建國한 新銳의 氣를 떨친 때이니 이 글에서 「새로 일어난 國力을 배경으로」 만들었다고 한것은 그것을 열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麻衣太子는 亡國의 사람이므로 新銳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石窟이나 尊像과는 인연이 없어야겠는데 그런 전설은 남아 있다. 이 글은 이 두 事件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약간의 모순을 지녔다. 그러나 新銳의 國力이 배경이었느냐 아니면 쇠퇴한 國力의 亡國恨이 응집된 것이냐로 나누어 생각해볼 계기는 된다.

秦弘燮博士는 이 彌勒佛의 造成年代를 一世紀頃으로 추정하였다.

석굴의 축조에 비하면 불상의 조형은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어깨의 폭이나 하체의 폭이 같음은 安國寺 石佛과 상통한다.

석실을 축조한 의기와 불상을 조각한 역할과는 합치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石窟寺院의 발달을 연구하는 데는 매우 귀중한 예이다. 조성은 一世紀경으로 추정한다.

秦博士의 글 「韓國의 佛像」에서의 설명이다. 一世紀는 고려 肅宗 때까지가 포함된 麗初 初半인데 교수의 견해는 一世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의 글에서 石窟과 本尊과는 그 造成의 時期가 서로 다른 듯한 인상이다. 「석굴 축조에 비하면 불상의 조형은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의 뜻이 格調의 차이뿐 아니라 시기적인 차이도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내로

된듯이 읽는 사람에게 느껴진다. 이번 실측에서 얻어낸 자료에서 尊像에 대한 문명이 몇가지 제기되었는데 그중에 石窟과 尊像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되었다.

지금 本尊은 여덟모 점은 寶蓋를 썼다. 木造의 架構가 法堂을 이루고 있던 시절에도 지금같은 寶蓋가 있었겠느냐가의 문이다. 상식적으로는 法堂內의 本尊이 露天에서와 같은 모자를 썼을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일단 모자를 쓰게된 시기는 法堂이 불타고 그 회복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때로 보아야 되리라는 것이다.

원래 寶蓋가 없었던 불상이었다면 寶蓋만이 後添되었을 것인데 이때의 本尊에는 肉髻와 螺髮이 머리에 제대로 造成되어 있어야 된다.

이번 조사에서 寶蓋안의 螺髮은 전면에 걸쳐있지 않고 肉髻의 존재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되었다. 이는 寶蓋를 전체로 하고 모자에 가려지는 부분의 治石은 적당히 하여서 장엄을 완벽하게 베풀지 않았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寶蓋를 열두에 두고 頭像을 조각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法堂內에서 寶蓋를 쓴 彌勒像을 처음부터 造成하였을 경우와 원래 奉安되었던 本尊像이 法堂灰燼때 크게 손상됨으로 頭像을 再造 奉安하였다고 보는 두가지 견해가 대두된다.

法堂內에서 모자 쓴 他例가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므로 가능성에서 제외한다면 큰 손상을 입게되어 交替하게 되었을 가능성의 경우만이 남는다.

지금 무엇이라고 할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단지 얼굴이 몸체에 비하여 너무 깨끗하고 保有狀態가 좋아 몸체와 얼굴이 따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에 同調하여 본다.

실측에 따르면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선이 火傷을 입어 손상되었고 剝地되어 造成 당시의 여유있는 體格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된다. 法衣의 탈락도 火傷에 의하였던 것으로 보므로 원래는 체격이나 의문의 표현에서 뚜렷하고 자신이 있는 尊像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점

으로 미룬다면 현재의 불상은 크게 손상된 뒤에 한번쯤 손질되어 불상사나운 물골을 면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이런 假像들이 전체로 용납된다면 本尊의 造成時期는 再考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本尊에 의하여 추정된 石窟의 創建年代도 다시 생각해볼 입장에 노이게 된다.

淸州大의 發掘에서多數의 瓦片이 출토하였다. 막새기와도 많은 수량이 나왔는데 그중에는 九、一〇세기경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다. 또 九세기경 만들어져 경주지방에 공급되었던 것이라고 보이는 것과와 胎質이나 등무늬가 대동소이한 것도 출토하였다.

瓦銘이 있는 등무늬도 있었다. 그중의 한가지에는 囟田의 무늬와 함께 「大官」 또는 「大管」으로 읽어지는 글자가 있다. 이는 三國史、職官志에 보이는 武官職의 「大官大監」의 「大官」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大官大監」은 眞興王 一〇年(五四九)에 설치된 것으로 著衿 六二人의 定員인데 眞骨일 경우는 벼슬이 舍知로부터 阿澹에 이르고 次品은 奈麻로부터 四重阿澹에 이르도록 규정되고 있다. 「大官大監」은 諸軍官과 隊大監 사이에 해당하는 位階로 大幢 五人、貴幢 五人、漢山停 四人、牛首頭停 四人、河西停 四人、完山停 四人으로 無衿이다.

지름재는 지역으로 보아 漢山停에 예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漢山停은 眞興王이 鷄立、竹嶺以西의 一〇城을 攻取한(五五一年) 뒤에 尙州에 上州停을 둔데 이어 國原을 小京으로 삼으면서 北漢山州를 설치한데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國原과 옛 高句麗 故土인 丹陽、淸風、堤川과 中原이 현재도 忠北으로 행정구획된 것처럼 옛날에도 漢山停에 속하여 上州停에 이웃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漢山停은 新羅六停중의 하나로 諸軍官 三人、大官大監 四人、隊大監 一人、第監 四人、監舍知 一人、小監의 領騎兵으로 漢山誓에 三人、領步兵으로 停에 六人이 大尺으로는 領騎가 漢山誓州로 二人、領步로는

停에 六人이, 배속되어 있었고 軍師幢主, 大尺幢主 各一人과 步騎幢主 六人, 著衿幢主 六人, 緋衿幢主 三人, 黑衣長槍末步幢主 二十八人, 軍師 監二人, 大匠大監一人, 步騎監六人, 著衿監六人으로 軍號 三三編成 중 가장 규모 큰 조직이었다.

堤川郡의 邑誌는 어떤 근거에서인지 獅子衿幢이 彌勒里의 北方에 당 하는 月岳山 獅子頻迅寺 부근에 있었다고 하였다(同書 一九六九年版 五三五頁). 三國史記에 보이는 獅子衿幢 三〇人중의 한 사람이 거느리는 군대가 여기에 주둔해 있었다는 기록인지 아니면 편의의 기록인지는 지금 알 수 없으나 이 일대에 設鎮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에서 군대의 주둔은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大軍團의 兵力은 要衝地에 散開하여 주둔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미륵리에도 오늘날의 師團級으로 보이는 대부대가 주둔하여 「大官大監」이 領首되고 그 직책을 갖은 사람이 信心이 돈독하여 施主가 되어 彌勒大院 境영에 참여하였거나 修補에 동참하여 「大官」의 銘號를 키워에 남기게 되었던 것이라고 가정하여 보는 것이다.

神文王 元年(六八一)에 監을 과하고 特軍을 두었다는 三國史記의 기록으로 보아 大官大監의 職名이 바뀌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弓裔가 王建에게 精騎大監이라는 大監 호칭의 버스를 주었던 사실에서 大監의 名號가 弓裔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王建이 九〇〇년에 忠州등지를 평정하자 공에는 阿漚의 버스를 주고 九一一년에 錦城을 정벌하자 大阿漚의 버스를 주어 공로를 표창한다. 이들은 신라식의 官職名이다.

弓裔는 孝恭王 九년에 文武百官의 직제를 신라제도에 따라 정한다. 여기의 大官大監은 그런 武官職名으로 채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에 역시 南北勢力의 對峙處인 小白山脈 要衝地에 군대를 둔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三國史記의 기사로 미루어 이 일대에서 공방전이 거듭되었던 사실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弓裔와 王建이 鷄立嶺一帶를 중심에 두고 활약한 史實을 三國史記와 高麗史에서 발췌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

一、眞聖王 三년(八九一) 元宗등이 沙伐州에 응거하여 반란
二、同王 九년(八九七) 弓裔·漢山州 管內 十餘郡 攻과
三、孝恭王 二년(八九八) 弓裔·漢山州 管內 三十餘城 攻과
四、同王 三年(八九八) 梁吉、國原等 十餘城主와 더불어 加平으로 진
격 弓裔를 공격

五、同王 四年(九〇〇) 國原 菁州 槐壤城을 이 弓裔에게 항복
六、同王 五年(九〇一) 弓裔、稱王

七、同王 九年(九〇五) 弓裔、竹嶺 東北地方을 侵奪

八、景明王 二年(九一八) 王建、高麗建國、七월에 尙州 땅의 甄萱 군
거지의 阿慈蓋가 항복

九、景哀王 四년(九二七) 王建、近嘉城의 百濟軍을 격파、八월에 高
思曷伊城을 순행함(지금의 聞慶)、九月 後百濟軍의 近嘉城을 공격

一〇、敬順王 二년(九二八) 王建、三年山城 親征 不克、八월에 忠州 幸
行、竹嶺路 伐쇄.

一一、同王 四년(九三〇) 王建、甄萱과 古昌郡 瓶山 밑에서 크게 싸워
승리.

一二、同王 五년(九三一) 王建、서라벌을 예방

一三、同王 六年(九三二) 王建·一 牟山城 親征

一四、同王 九年(九三五) 敬順王 고려에 歸附、王子 皆骨山으로 들어
감(麻衣太子와 德周夫人의 설화와 佛蹟들)

弓裔, 王建太祖와 대립되던 甄萱도 이 지역과는 깊은 인연이 있었다. 九一八년에 王建太祖에게 항복한 阿慈蓋(阿慈介)는 甄萱의 父親이라 하고 尙州에 世居하던 豪族이었다. 지금 尙州 땅에는 甄萱宮址、甄萱城 등으로 불리우는 遺址가 남아 있다. 父親의 항복으로 甄萱은 큰 타격을 받았겠지만 成長한 고장이었으므로 이 일대에서의 對峙에서 그는 地理에 대한 지식을 심분 발휘하였을 것이다.

阿慈蓋의 항복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麗太祖 王室의 끈

덕진 공작에 회유되었다고도 보인다.

太祖의 할아버지 作帝建은 하늘막에 俗離山에 들어가 長岬寺에 머문다. 느닷없이 開城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老後를 의탁하는 까닭이 분명하지 않다. 이 사건을 作帝建의 作戰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高麗王室에서는 벌써 統一을 염원하고 對峙의 罅이 있는 이 地域에 觀心을 두어 폭섭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상은 阿慈蓋의 甄萱一族이었을 것이다.

長岬寺의 遺址는 尙州郡 北面 長角里에 있다. 長角寺址라고 동리사람들이 傳稱하는 자리가 그 터전이라 생각되는데 지금도 법당터와 石塔이 남아 있다. 甄萱宮址라 전하는 터전과는 불과 二~三km쯤 상거하고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할아버지 作帝建이 終命한 이 지역에 太祖가 觀心을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作帝建은 道說에 의하여 太祖의 등극을 예언받는다. 太祖가 등극하여 治世할 수 있도록 身命을 바쳤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런 할아버지에게 태조가 무심할 수 없었던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태조의 이 일대 지리적인 지식도 상상하였을 것이고 甄萱征伐에 이 지방을 지나기도 하여서 聞慶縣 申岬遷의 逸話도 남긴다.

聞慶의 豪族 興達의 投降도 받는다. 城主 興達로 하여금 九三七년에 拜山城을 수리하여 지키도록 한다. 甄萱軍을 막는 요충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太祖는 興達의 投降에 크게 기뻐 그의 아들 셋에게 각각 祿을 주는데 둘째 아들 雄達에게는 寒水縣을 준다. 寒水縣은 앞에서 言及하였듯이 彌勒里의 계류가 흘러 북쪽에서 漢江에 합류하는 지역으로 지금은 堤川郡에 속한 고장이다. 聞慶쪽에서 보면 小白山脈 넘어어나 미류리에서 보면 鷄立嶺下에 聞慶이 있는 것이므로 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鷄立嶺은 일찍부터 開拓된 大路이었으므로 太祖가 여기에 주목하였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신라때부터의 여러 시설이 이미 퇴락하였던 것이라면 그 자리에 새로운 군사시설이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弓裔나 王建이 鷄立嶺에 군사시설과 더불어 裨補 또는 願利이나 水陸道場등의 목적으로 寺院을 경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鷄立嶺의 永久的인 장악에 그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彌勒大院의 建設인 것이다.

駐屯한 軍隊의 적극 動員으로 이 巨大한 石窟寺院은 건설된다. 新興國家의 憧憬하는 士氣는 巨石을 서슴없이 다루어 寺院을 완성시켰는데 이 기운을 黃博士는 新興國家的 造營物로 인식하였다.

月岳山은 신라때 中祀를 잡았던 名山이다. 顯宗 一三年(一〇二二)에 「怨敵을 소멸시키려는」 발원에서 獅子頻迅寺塔이 造成된다. 이 절은 月岳山麓에 있고 彌勒大院에 이웃하였다. 이 일대는 그만큼 神聖視되던 고장이었으므로 太祖의 彌勒大院 經營은 그 가능성이 고조된다.

寺院 造成後에 軍隊가 동원된 例는 醴泉 開心石塔記에 光軍 四六隊(一一五〇名)을 동원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淨兜寺五層石塔 造成形止記에서도 一品軍의 동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事例로서 그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二〇〇餘噸에 이르는 巨大한 石材들을 사용하여 石窟을 築造하는 방도들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승려들만의 힘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 것이다.

여러가지 여건에서 彌勒大院은 王建太祖의 中央塔造成說이나 王宮塔造成說 등과 함께 경영하였던 일련의 기념비적인 寺院으로 永久的인 목적에서 경영되었던 것이라 추정하여 그 造成時期를 九〇一~九三七년사이로 보고자 한다.

獅子頻迅寺塔의 一〇二二년대의 獅子보다 古格인 것이 彌勒大院에 보이며 一〇세기나 九세기말이라 보이는 막새나 등두늬 있는 기와의 존재 등에서도 이 시기를 생각하게 하는 자료를 얻는다.

五、大院의 終末

지독한 火災로 石窟은 致命的인 타격을 받아 결국 法堂을 再現하지 못

하는 지경에 이르러 本尊에 寶蓋를 씌워 露天佛로써의 法力을 지속하도록 조치하였다. 灌燭寺나 大鳥寺의 彌勒佛과 같은 露天大佛로써의 관용을 갖게 된 것이다.

어느 때까지 法堂이 유지되어 彌勒大院의 威容이 존속되었겠느냐 하는 점의 의문이다.

三國遺事를 쓴 一然스님이 在世하던 시절에는 이 彌勒大院이 있었다. 그래서 王曆의 第八代 阿達羅尼叱今條에 「又與倭國相口口鷄立峴今彌勒大院東嶺灰世」라 표현하였다. 「今彌勒大院」이라 부르는 것이 鷄立峴에 있다는 내용인 것이다.

鷄字는 잘 보이지 않는 글자로 □로 처리하였으나 阿達羅尼叱今이 開拓한 鷄立嶺은 當代의 一大事件으로 歷史에 기리 남을만한 업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는 鷄字로 관독함이 順理이다.

현재 彌勒里石窟寺院은 이때의 彌勒大院인 것이다. 瓦銘의 「大院」은 바로 이 이름을 지칭한 것이다.

一然스님이 在世하던 시기는 一一〇六~一二八九년이였다. 이때까지는 彌勒大院에 香火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밭골에서 얻어낸 지식을 고찰해 보아야겠다. 지금까지로 보아서는 조선조시대의 유물은 地層中에서 出現하지 않고 있다. 밧골보고서에 전혀 言及이 없다. 이때는 이미 大院은 燒燼된 이후이었던 모양이다.

출토한 在銘瓦중에 「德山公草」라 한 것과 「彌勒堂」이라 써진 것 「金堂」銘瓦와 「甲午年」銘의 瓦片들은 胎質이나 製瓦法、燒成度 등이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甲午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大院의 上限을 九〇一~九三七년으로 보았을 때 甲午는 敬順王 八년과 甄萱四三年、麗太祖一七년에 해당하는 九三四년이다. 九三四년 한甲子 소급은 八七四년으로 신라 景文王의 末年(一四年)에 해당하고 한 갑자를 뒤로 보면 고려 成宗 一二년의 九九四년에 상응된다.

밭골중 출토한 막새중 제일 오래되었다 보이는 九세기경의 연화문 솥

막새는 龜趺가 있는 부근에서 수습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甲午年」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그들 막새는 八七四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大院이 경영되기 이전에 이 盆地에는 上代의 또 다른 시설이 경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불행히 이번 밧골에서는 그 점에 유의되지 않았던지 보고서에 言及이 없는 데 지름재가 이미 一五六년에 개척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반드시 여기에 관계 시설이 있었을 것임은 틀림없다. 주변에 四佛山、竹嶺 輔國寺、周項嶺의 鳳巖寺、中原의 諸上代遺蹟들이 존재하는 점에서 그 점은 인식된다.

「甲午年」을 九三四年으로 본다면 이는 大院의 創建時期에 부합된다. 같은 시기의 제품인 「德山公草」銘은 이런 점에서 注目되어야 한다. 이 「德山公草」는 淸州大金榮振교수가 「德山」의 「公草」로 해석하였다. 公草는 「구이새」로 구은 기와의 의미라 하였다.

訓蒙字會나 物名考등에서는 기와를 「디신」라 한다 하였다. 公草를 「귀새」라 읽는다면 귀새는 「디신」에 상통된다. 이는 고려때에도 기와를 「디신」라 하거나 「귀새」라 하였다는 귀중한 단어를 얻은 행운의 瓦銘이 된다.

「德山」은 地名으로 보인다. 堤川郡에 德山面이 있는데 두 德山은 같은 고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堤川郡誌(一九六九年 一二月刊)에 의하면 德山은 淸風縣의 名所이고 月岳山 神勒寺 승려들에 의하여 개발되어 著名하여진 德山紙의 產地이다. 이 고장은 신라때의 德山鄉의 故地이기도 하다.

鄉은 신라때부터 조선조 초기까지 있었던 특수한 지방의 집단 취락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금은동철실종이 도자기며 등을 만드는 工匠들이 모여사는 부락이거나 奴婢、賤民들이, 또는 특수기능 보유자들이 사는 곳을 일컫는 것으로 鄉、所、部曲등의 하나이다.

德山鄉은 그런 工團의 하나로 상당한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던 모양이며 高麗王朝에 협조적이었던 듯 하다. 大院에 쓰일 상당량의 기와를 施主한 것도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一九七八년 겨울철 발골에서 「坵令」銘 瓦片이 출토하였다. 左書한 글이 있는 이것은 「德山公草」銘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데 여기의 坵令은 「甘物內彌部曲令」으로 해석된다. 甘物內彌部曲은 忠州 땅에 있었던 여러 部曲 중의 하나이다. 그 部曲의 우두머리인 「令」이 대표가 되어 기와를 大院에 시주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彌勒大院의 건설에는 이웃 經濟團地의 협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제적인 뒷받침은 寺院經營의 기반이 되었을 터인데 出土瓦銘에 보이는 「文柱」「吾尙」등도 그런 기여도에 의한 표지로 이해된다.

고려에서는 國初에 內外寺院에 隨院僧徒를 두어 常執勞役하게 하다가 국가에서 興師하게 되면 이들을 諸軍에 分屬시키는 제도를 두었고 또 僧徒로 降魔軍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大院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었을 것이다. 大院이 주축이 된 시설물들이 盆地內에 가득 들어서고 그것들은 軍用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며 이웃의 경제단지에서 補給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이는 서로의 보완적인 역할로 짐작되는데 당대의 運輸體制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름재나 竹嶺은 북쪽 漢江과 남쪽 洛東江에서 水運되어온 文物을 陸路로 연결하여 주는 중개소가 되는 셈이다. 양쪽 강의 上流에까지 끌어올려진 배에서 揚陸한 짐은 일단 창고에 넣었다가 동원된 負夫들에 의하여 南과 北의 창고로 고개넘어 운반되고 그것이 다시 배를 타고 조운된다. 淸國縣의 茂巖山 倉庫가 고려때 「輸慶尙道田賦于此」하던 곳이었던 점에서 알 수 있는데 많은 役夫들이 大院의 隨院僧徒로써, 一品軍으로서 주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경제단지의 產出品의 수송도 이들에 의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 出土된 막새는 발골보고서에 수록되었만도 솟막새가 一一種, 암막새가 七種이다. 言及은 없지만 현지조사에서의 확인된 기와의 유형은 三〇종류에 이른다. 또 鷓尾片, 方磚片도 出土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一〇, 一一, 一二세기의 것들이다. 一三세기 이후의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一三세기 이후로는 釃瓦가 없었다는 의미

가 되겠다.

出土된 瓦片에 在銘이 있음을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 하였다. 보고서에는 「明昌三年」「僧元明」「明昌三年金堂改蓋」「院主」등이 소개되어 있다.

「明昌三年」은 고려 明宗 二二年 壬子(一一九二)에 해당한다. 이때에 기와를 써서 釃瓦를 하였다. 이때의 住持가 院主라는 이름도 함께 하였는지 서로 다른 직함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元明과 里儒가 기와만 드는 化主가 되어 그 芳名을 瓦銘에 기재하였다.

이때의 彌勒大院은 단순히 大院寺라 불리어지기도 하였던 모양이며 住持는 大師 元明이었다.

大院의 首領은 당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인다. 경제적인, 군사적인, 문화적인 능력이 彌勒大院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이 생기기도 하였다. 사건의 장본인은 牛本이란 스님이다. 牛本은 院主라는 직함을 갖고 있고 大院寺의 책임자이었다.

이때 崔怡는 蒙古軍이 침구한다는 소식 듣고 크게 당황한다. 도적의 무리도 軍勢만 있으면 초창하고 賞을 주거나 벼슬을 주었다. 馬山草賊의 피수가 후한 상을 받고 金環子를 달 수 있도록 허락되기도 하였다. 또 忠州에는 奴軍을 지휘하는 賊魁 池光守가 있었다. 그와 友軍이 된 僧牛本이 있었다. 둘이 崔怡를 찾아간다. 池光守에게 校尉의 벼슬을 주고 牛本에게 忠州大院寺主를 시켰고 加三重하였다. 스님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彌勒大院의 院主 노릇이었다. 그러나 뒷날 그는 政府軍의 공격을 받고 忠州城에서 암살되고 만다.

몇해째 계속되는 蒙兵의 침입이 高宗 四二年(一一五五)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冬 一〇月 蒙兵이 大院嶺을 넘어오므로 忠州에서 精銳兵을 내어 千餘人을 격살하였다. 이 전투는 기록이 이것 뿐이어서 전후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大院嶺을 넘은 일은 오히려 남쪽에서 北上하는 듯이 하였던 것 같다. 忠州에서 급파한 것은 이 기습을 예기치 못하였던 듯하다.

忠州軍은 蒙兵과 싸워 지지 않았다. 四一년에는 車羅大의 斥候騎가

槐州城(지금의 槐山)下에 이르니 散員 張子邦이 격과하고, 九月에는 車羅大가 忠州城을 공격할 때 도정에들이 분격하여 蒙兵을 격살하니 포위를 풀고 南下하였다.

車羅大는 南下하여 一〇월에 尙州山城을 친다. 이때 黃嶺寺의 僧인 洪之의 노력으로 蒙兵은 드디어 退去하였다.

이보다 한 해 앞선 四〇年 九月에 忠州倉正 崔守가 金堂峽에 伏兵하였다가 급히 쳐서 蒙古를 퇴각시키고 포로되었던 사람을 구출하였다. 여기의 金堂峽이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혹시 彌勒里의 洞府가 아닌지 모르겠다.

다음 달인 一〇월에 蒙兵이 또다시 忠州를 포위 공격하였다. 一二月에 충주에서 보고하기를 蒙兵이 포위를 풀었다고 하였다. 또 同王 四三年 四月에도 蒙兵은 忠州에 들어와 山城을 공격하다가 月獄神祠의 神助로 쫓겨가고 만다. 여기의 忠州싸움은 德周山城에서의 전투이었고 山城은 米魯대원에 이웃하여 있다.

月獄神祠의 神助는 그 전에도 있었다. 그래서 四一年 一二月 甲申에 山川神祇를 神廟에 합사하고 告由할 때 神祐의 고마움을 칭송하는 글을 올린다.

이글의 文脈으로 보아 月嶽山城도 忠州의 관할이었고 따라서 지름재도 충주에 예속되었던 것이므로 忠州地方의 싸움에는 忠州邑城、忠州山城、德周山城(月嶽山城)、彌勒里金堂峽、大院嶺의 접전이 있었는데 모두 勝捷하였다.

大院嶺와 金堂峽戰鬪는 彌勒里가 戰場이었으므로 여기에 寺院과 군사시설이 이때 있었다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리라 보인다.

彌勒大院이 불타버린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가 문제인데 그 가능성은 高宗二五年(一二三八)에서 四三年(一二五六)間으로 推定된다. 혹은 一然스님이 在世하던 一二八九년까지로 볼 수 있다. 결국 彌勒大院의 下限은 一三세기 말엽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六、結 語

中原 彌勒里의 原名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國家指定되고 세상에 소개되고 있다. 미처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아주 쉽게 접근하고 있는 史書에 뚜렷한 名號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燈下不明格으로 注目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최근 米魯리의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관계 보고서가 三卷씩이나 刊行되었으면서도 名號는 看過되었다. 뒤늦게나마 彌勒大院이라는 이름이 밝혀졌고 그 朔建年代와 灰燼된 下限年代가 推定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出土된 瓦銘이 한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文字가 영성한 상황에서 瓦銘의 출현은 매우 반가운 자료가 되었다.

이는 發掘과 實測을 통하여 얻어낸 知見이다. 發掘과 實測調査의 효과와 이런 정도인데 발골은 불행하게도 아마추어들에 의하여 자행되어서 언어야할 자료를 다 탐색하지 못한 경향에 흘렀다. 아깝고 한심한 일이다.

註

①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九 聞慶驛院條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